

# 광주대·동신대·호남대 산업계 평가 최우수

경제 5단체·산업체 심사  
동신대 정보통신·광주대 SW  
호남대 전자반도체 부문



‘2017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정보통신 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동신대 정보통신공학과와 실습 모습. <동신대 제공>

광주대, 동신대, 호남대가 2017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부문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23일 동신대 등에 따르면 동신대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2017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정보통신 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소프트웨어·전자반도체·정보통신·정유석유화학·화학품 5개 분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75개 대학, 160개 학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동신대 정보통신공학과는 이중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앙대, 동국대 등과 함께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대학 교육 과정이 산업계 요구에 어느 정도나 부합하는지 기업들이 평가하는 사업이다. 각 대학의 배출 인재들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과 얼마나 맞는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총협회)와 산업계 부서장들이 직접 평가한다.

광주대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소프트웨어 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광주대 컴퓨터공학과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17 소프트웨어 분야 대학평가’에서 중앙대, 중앙대 등 16개교와 함께 최우수대학에 포함됐다.

김혁중 총장은 “기업들이 대학 교육 과정의 산업수요 반영 여부를 평가한 것으로 광주대의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공인 받은 것”이

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대도 같은 평가에서 전자반도체 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소프트웨어·전자반도체·정보통신·정유석유화학·화학품 등 5개 분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75개 대학, 160개 학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자공학과는 이중 전자반도체 분야에서 성균관대, 한양대 등과 함께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전자반도체 분야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 중 호남대가 유일하다.

호남대는 지난 ‘2015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식품분야에서 식품영양학과가, 미디어분야에서 신문방송학과가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해 동강대학교가 개최한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창업성과경진대회’ 모습.

## 예비CEO들, 동강대서 성공 꿈 키운다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황금빛 창업을 이끄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앞장선다.

동강대 산학협력단(단장 임승우)은 광주시 북구청과 함께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올 12월까지 ‘Hidden idea 발굴을 통한 지역창업 지원 사업’을 펼친다.

사업 대상은 동강대 졸업 예정자와 만 15~34세 광주시민 가운데 청년 지역산업 특성화 및 IT기술 분야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디어 보유자 등이다.

동강대는 총 사업비 2억4450만원을 들여 교육생 18명 가운데 12명의 청년CEO를 양성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1인당 1000만 원의 창업지원금과 향후 동강대 창업보육(BI)센터 입주 기회, 센터 보유 시설 이용,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기본 창업교육 뿐 아니라 4차 산업형 융합 아이디어, 지역산업 특화 분야 등 숨겨진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차별화된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 아이템 검증과 창업 실현가능성의 구체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선배 기업과 교류회, 투자 상담, 사업화 체험교육(Cash-Class) 등을 통해 예비 CEO들의 기량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동강대 BI센터는 전국 최고의 창업사관학교 명성에 걸맞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창업 성공률의 향상과 폐업률의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다.

사업 책임자인 동강대 창업교육센터 박경우 센터장은 “동강대 BI센터의 2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 실패는 줄이고 성공 확률은 높여 지역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여대, 위기 청소년 자존감 회복 돕는다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가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도움으로 나섰다.

광주여대대학교(총장 이선재) 사회복지학과는 최근 광주보호관찰소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김운유(사회복지학과 2년)씨 등 10명은 법무부로부터 특별 봉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은 오는 8월 3일까지 5개월 동안 개인면담, 단체활동 등을 통해서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고 진로문제 등을 상담한다.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광주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대입 개편특위 구성...의견 수렴 돌입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3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특위에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과 일반대협의체·전문대협의체·교육감협의체가 추천한 3명, 교육 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모두 13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맡는다.

교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추천한 1명과 교육 전문가 가운데 선정된 1명 등 모두 2명의 현직 교사가 참여하게 됐다.

학부모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앞으로 권역별 행사인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각계



김진경 위원장

의견을 모으고, 대입제도와 관련된 세부 사항 가운데 어떤 사항을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할지 범위를 정한다.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구체적 개편 시나리오를 만들어 방송 토론회 등 속의 절차를 거치면 특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신인영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특위 구성 과정에서는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이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절차

시기	주관	주요 추진 내용
4~5월	국가교육회의 (대입 특위)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수렴 공론화 범위 설정
6~7월	공론화 위원회	공론화 의제 선정 공론화 의제 국민토론 · 권역별 국민 토론회 · TV 토론회 · 온라인 의견 수렴
8월 초	국가교육회의 (대입 특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확정·발표

자료/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연합뉴스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시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리카미노산,  
원적외선 특수물질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